

비평적 지역주의(The Critical Regionalism)로 본 한국 성당건축의 지역성 표현

- 개화기에서 1980년대까지의 성당건축을 중심으로 -

권태일*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주제어 : 비평적 지역주의, 성당건축, 세계성, 지역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떻게 근대화(세계성)되면서 그 근원(전통과 지역성)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는가?”¹⁾ 알핏, 모순일 것 같은 이 말에는 ‘비평적 지역주의’ 개념이 압축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이성만을 추구하는 지역주의와 달리, 비평적 지역주의란 보편적인 세계성과 다양한 지역성의 접점(接點)을 ‘비판적 자의식 (a critical self-consciousness)’을 통해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에서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다양한 개별지역의 전통과 문화의 비평적 수용을 통해 자본 종속적이고 획일적인 20세기 모더니즘건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는 모더니즘건축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는 현대건축의 혼돈 속에서 하나의 새롭고 뚜렷한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의 의의를 갖는다.

성당건축에서도 비평적 지역주의의 문제는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한국처럼 전통 서양식과 모더니즘 성당건축의 영향이 세계성으로 작용하면서, 개화기이래로 오랜 동안 한국 전통건축과 충돌, 변용, 융합 등의 토착화 과정을 거쳐 간 경우, 성당건축의 지역성 표현문제는 비평적 지역주의의 시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00여년이 넘는 토착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이 무시된 채 여전히 정체불명의 서양식 복고풍 성당건축이 난립하는 현실을 볼 때, 지역성의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이러한 취지로 개화기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 성당건축이 직면해온 다양한 지역성 표현 문제를 비평적 지역주의의 시각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의 한국 성당건축이 나아가야 할 지표 설정에 일조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이메일: kweon886@deu.ac.kr

1) Kenneth Frampton, Toward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Holposter,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New Press, 2002, p.16.

2) *Op. Cit.*, p.2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비평적 지역주의로 한국 성당건축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데에는, 먼저 다음 두 물음에 대한 해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한국 성당건축에서 지역성의 표현과 비평적 지역주의의 논의는 필요한가?’라는 당위성의 물음이다. 둘째, 필요하다면, 비평적 지역주의를 어떤 범위와 수준에서 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 한국 성당건축에서 세계성과 지역성을 어느 수준에서 범주화 시키고 그것을 비평적 지역주의와 관계 지을 것인가의 해석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첫 단계로, 위의 두 전제를 건축사(建築史)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당위성 확보와 논의범주를 설정하여 한국 성당건축에서 비평적 지역주의의 접목 가능성을 먼저 살핀다. 그런 후 여기에 기초한 본격적인 논의단계로서, 비평적 지역주의의 시각으로 개화기에서 1980년대까지³⁾ 한국 성당건축의 지역성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그 배경이 되는 천주교의 토착화과정과 연계⁴⁾하여 심층적으로 추적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지역성 표현의 주류를 형성한 한국 전통건축과 접목된 내용에 초점을 둔다.⁵⁾ 그리하여 결론에서는 분석된 결

3) 논의의 범위를 1980년대까지로 한정할 이유는, 1990년대 이후의 성당건축에서 지역성의 표현은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이 글에서 모두 다 다루기에는 그 내용과 지면상의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4) 이런 맥락에서 저명한 천주교 전례신학자이자 성당건축 비평가인 Denis R. McNamara의 “건축은 이상(理想)의 구축 형태이고, 성당건축은 신학(神學)의 구축형태이다. 이상의 흐름에 따라 건축은 흘러간다.”란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천주교의 종교적 토착화과정과 성당건축의 지역성표현은 결코 분리해서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Denis R. McNamara,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and the Spirit of the Liturgy*, HillenbrandBooks, 2009. p.8.

5) 한국 성당건축의 지역성 표현은 전통건축과의 접목 외에도 토속적 요소의 표현이나 이미지, 장소성의 상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사례의 수나 건축적 완성도에서 전통건축과 연계된 표현이 압도적인 주류를

과를 토대로 한국 성당건축의 지역성 표현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본다.

2. 비평적 지역주의와 성당건축

비평적 지역주의를 논하기 위해, 우선 ‘지역성’ 혹은 ‘지역주의’의 개념을 간략히 보자. 일반적으로 지역성이란 ‘특정지역의 자연이나 문화적 속성의 자치성’⁶⁾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같은 지역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고대나 중세의 지역성은 주로 민족의 근원을 추적하거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개념이었으나, 근·현대에서는 영토식민화를 위한 제국주의나 글로벌 자본주의에의 저항을 토대로 그 의미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⁷⁾

이론다. 이런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한국 전통건축과 연계된 내용에 두며, 그 외의 요소는 차후의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6) 이러한 지역성은 종종 ‘지방성(locality)’이란 용어와는 구별된다. 세계성(globality)의 상대 개념이 지역성이란, 지방성은 지역 혹은 국가의 하부 국지역역의 속성을 일컫는 말로 볼 수 있어서이다. 다시 말해, ‘세계성-지역성-지방성’이 전체지구를 이루는 중층(重層)적 구성단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초점을 두는 지역성이란 적어도 민족이나, 국가단위의 지역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연구 방향에 따라 지방성과 지역성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에 등장하는 지역성의 의미에 논의의 초점을 두기 위한 개념적 정의이다. 지방성과 지역성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2009,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역학 연구회, 「지역학연구의 과제와 방법」, 책갈피, 2000. G. C. Spivak, *A Critic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등을 참조

7) 고대와 중세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서는 「인도지」, 「갈리아 전기」, 「게르마니아」, 그리고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등이 있으며 주로 민족의 근원이나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역성 혹은 지역주의의 연구는 18-19세기 근대 제국주의 국가의 형성과 함께 식민지 정복수행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주도하에 교전상대국을 연구하는 냉전시대의 산물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억압에 저항하는 대안으로서 탐구가 되고 있다. 한국의국어대학

건축 또한 역사의 시·공간적 산물이란 점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을 따른다. 고대의 그리스나 이집트, 그리고 중세 유럽의 전통건축에서는 각 민족의 정체성이 뚜렷이 표출되며, 18-19세기 서구 제국주의에 저항한 탈식민주의건축이나 20세기 모더니즘건축의 획일성과 자본주의 종속의 비판 등에서 태동한 다양한 지역주의건축이 전술한 역사적 흐름에 편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중반부터는 모더니즘건축과 자본주의에 기초한 국제주의양식(The International Style)의 획일성에 저항하여, 앞서 본 '비평적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물론, 성당건축도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종교적인 특성상,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지역별 천주교의 전래시기와 장소, 수용환경 등에 따라 지역성의 표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성당건축의 지역성은 어떻게 표현되어왔을까?

성경에 따르면, 성당건축의 기원은 고대의 성막(The Tabernacle, BC 11세기 경)이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예배하던 성소(聖所)로서, 전례공간 구성, 방위, 배치 등은 모세(Moses)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형식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그 의미는 달라졌지만, 오늘날까지도 전례공간의 구성방식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보편성⁸⁾을 또한

교 지역학 연구회, *Op. Cit.*, p.16.

8) 성막의 전례공간은 출입구(The porch)-성소(The Holy Place)-지성소(The Holy of Holies)의 3단 위계로 구성 되었으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이루어 졌음을 구약 성서 '탈출기 (35-40장)'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엄격한 공간적 위계와 폐쇄적 경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막이 찢어지는 사건'(마태복음 27장 51절) 이후로 개방과 통합의 의미로 변모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 구분의 흔적은 '성당입구(배랑)-회중석-중앙제대공간'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전례공간의 형식으로 변용되어 초기기독교 건축에서 중세를 거쳐 현재까지 성당건축의 보편적 속

갖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조형식이나 재료 측면에서 보면, 사막지역에서 철거와 이동이 손쉬운 텐트형 구조로서 그리스도교가 발생한 서아시아지역의 기후와 풍토를 가만한 지역성이 표현된 것이기도 하다.

이후 기원전 10세기에 이르러, 최초의 영구적 건축물로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The first Temple of Solomon)이 세워진다. 여기서도 전례공간은 전통적 구성을 따르되, 양식과 재료 등에서 다양한 지역성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이스라엘 북부 고대 페니키아 티르(Tyre)지역의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주요 건축자재는 인근 레바논(Lebanon)지역에서 조달 되었다. 이것은 성전(聖殿)이란 본래 '하느님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 모든 지역 사물들의 종합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태도와 연계된 것이었다.⁹⁾ 이처럼 건축양식이나 재료의 구성에서 지역적 특이성이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중세의 성당건축에서도 지역성은 나타난다.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AD 4세기 경 로마의 초기 성당건축에서 12세기 고딕식 성당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성을 볼 수 있어서이다. 예를 들어, 중세 초기의 구 베드로성당(AD 326-333)은 그리스와 로마건축양식이 혼합되어¹⁰⁾ 있고, 비잔틴양식이라 불리는 성소피아 성당(AD 537)은 동양과 서양건축양식이 혼재된 형식을 보이는데, 이것은 성당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사회적 중심이 되면서 성당건축의 통합된 양식을 보여준 로마네스크와

성으로 남아있다.

9) Denis R. Mcnamara, *Op. Cit.*, p.46.

10) Winand W. Klassen,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San carlos Publications, 1980. p.80.

고딕식 성당에서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국가, 지역별로 차이는 존재한다.¹¹⁾ 이처럼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성당건축의 지역성은 민족이나 국가단위의 건축적 정체성과 관계가 깊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지역성의 의미는 변화를 겪게 된다. 고대나 중세와는 달리, 근대건축의 지역성은 계몽주의와 산업화에 기초하여 영토식민화를 지향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개념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토대를 둔 탈-식민주의적 건축양식을 등장시켰고, 제국주의에 억압되었던 가톨릭교회 또한 권위회복을 위해 그러한 흐름에 따르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국주의의 표상인 신고전주의건축에 저항하기 위해, 교회건축의 이상으로 삼은 고딕양식을 국가 혹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재현한 고딕복고식 성당건축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역성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에 직면한다. 이제 더 이상 국가라는 영토적 경계를 토대로 지역성이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라 불리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지역성은 영토적 의미보다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나, 합리적 이성을 도구화시킨 서구의 전체성에 대한 비판 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¹²⁾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11) 로마네스크 성당건축의 경우, 정통 독일식에 비해 프랑스식은 동쪽 단부 사제공간의 평면이 발달하고, 이탈리아식은 전통 바실리카형 성당건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딕식 성당건축에서는 원류인 프랑스식이 내부공간의 수직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영국식은 수평적 특성을 유지하며, 독일에서는 동일한 높이의 회중석(Nave)과 측랑(Aisle)을 갖는 독창적인 홀식 교회(Hallenkirche)가 나타나고, 이탈리아에서는 고딕을 장식적으로만 사용하는 차이를 보인다. Winand W. Klassen, *Op. Cit.*, pp. 95-131.

12) 서구 근대자본주의의 전체성에 저항한 독일 프랑크 푸르트학과 중심의 ‘비판이론’이나, 근대적 의미의 주체, 국가, 역사 등의 이론적 준거를 붕괴시키고자하는 테리

건축에서도 확일적이고 자본종속적인 국제주의 양식에 저항하여 새로운 지역주의건축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지역적 특이성만을 주장한 기존의 지역주의건축 개념을 변모시킨 것으로서, 전술한 비판이론에 기초하여 국제주의양식과 지역건축문화 둘 다에 거리를 두는 동시에 새로운 접점을 찾아가는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이다. 현대의 성당건축에서도 이러한 영향은 미치게 되어 다양한 시도¹³⁾가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성당건축은 풍토성, 이질문화의 유입과 영향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성을 표현해 왔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오히려 역사적인 특정 양식만을 고집한다든지, 지역적 특성과 아무런 관련 없는 중립적 건축 등을 추구하는 것이 비-교회(敎會)적 건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성당건축의 논의에서도, 앞서 전제한 지역성의 표현문제와 ‘비평적 지역주의’라는 개념은 이제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성당건축에서 비평적 지역주의의 적용 범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건축에서 비평적 지역주의 개념의 본격적인 확장파 체계화는 프램톤에 의해서이다.¹⁴⁾ 그는

다(Jaque Derrida)의 ‘해체론’ 등이 탈식민주의의 대표적 담론이다. 프램톤의 비판적 지역주의도 위의 비판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Kate Nesbitt,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p.468.

13) 대표적 사례로 프램톤인 엄급한 요른 웃존의 ‘박스벨트 교회’, 루이스 바라간, 루이스 칸, 알바 알토, 안도 타다오 등의 지역주의 성당 혹은 교회건축을 들 수 있다.

14) 물론, 프램톤 이전에도 많은 논의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비평적지역주의의 개념적 시발은 범포드(Lewis Mumford)에 의해서다. 1947년, 그는 전후 국제주의양식을 비판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전통이 융합된 산물로서 토속적이고 인간적인 형태의 모더니즘건축”¹⁾을 주장한다. 이는 지역성을 한정된 특정지역의 속성으로만 보는 기존의 태도와 달리, 다양한 지역의 속성을 융·복합시킴으로서 보편성을 갖는 새로운 건축으로의 발전 가능

이 개념을 ‘후위(後衛, arrière-garde)¹⁵⁾’라는 용어를 인용하여 “보편적인 문명(universal civilization)과 (다양한 지역의) 세계문화(world culture)사이의 자의식적인 종합(a self-conscious synthesis)¹⁶⁾”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프램톤의 비평적 지역주의가 기대고 있는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은 근본적으로 억압의 이데올로기, 즉 서구 근대화본주의의 전체성이나 도구적 이성 등에 대한 저항¹⁷⁾을 모토로 삼는다. 그러므로 그가 주장하는 세계성과 지역성의 비판적 종합이란 단순한 건축양식이나 구성(composition)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이데올로기의 지배와 종속체제에 대한 비판과 변증법적 접목이란 범주로 확장시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을 포함한)비-서구지역에서의 천주교의 토착화과정과 성당건축의 지역성문제도 비평적 지역주의라는 도구를 통해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효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근대 서구제국주의 세력을

등에 업은 천주교가 지배적인 종교문화로 비-서구지역에 이입되면서 토착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 영향선상에서 서구의 성당건축과 지역의 전통건축 사이에 충돌, 융합, 변용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세계성과 지역성의 비판적 접목이란 논리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프램톤이 제시한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의 조건들, 즉 1)구축성 (The Tectonic), 2)촉각성 (The Tactile), 3)장소-형태 (The Place-Form)¹⁸⁾를 성당건축의 지역성 문제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종교건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는 대지의 성격과 의미(장소성)로부터 구축요소들의 구성, 그리고 공간의 질에 이르는 건축전반을 포괄하는 조건이란 점에서 성당건축의 지역성 문제의 논의에서도 대부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구축성’이란 건축물의 건조방식 혹은 구축방법을 구조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프램톤의 의미는 단순히 건축의 생산방식이라는 자본주의적, 기술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건축물의 내부구조가 갖는 역학관계를 인식 가능한 예술의 형태로 끌어 올리는 활동, 즉 “시적인 구조 표현(The presentation of a structural poetic)¹⁹⁾”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의

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에 개념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후, 1980년대 초반 초니스(Alexander Tzonis)와 르페브르(Liane Lefaivre)는 멀포드의 주장을 계승하면서 ‘비평적 지역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더니즘건축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노선을 따르면서도, 비판적인 자의식(a critical self-consciousness)을 통해 지역성과 전통을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 이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혁신을 주장하는 전위(前衛, avant-garde)와 대비되는 의미로 프램프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후위’의 위치란 진보적인 계몽주의 신화에 대해서나, 산업화 이전의 과거의 건축형식으로 되돌아가려는 반동적이고 비현실적인 충동에 대해서나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말한다.” Kenneth Frampton, *Op. Cit.*, p.20.

16) *Op. Cit.*, p.22.

17)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비판이론에는 ‘파시즘 및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실증주의적 과학방법론에 대한 비판’, ‘후기 자본주의의 위기 비판’ 등이 포함된다. 문병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비판이론”, 동녘, 1996. 참조

18) 프램톤이 제시한 저항의 건축을 위한 6가지 요점 중 건축적으로 핵심이 되는 세 요소이다.

19) Kenneth Frampton, *Op. Cit.*, p.20. 이 점은 프램프톤이 구축성을 주장하면서 언급한 칼 비히터의 입장을 보면 명확해 진다. “모든 특정양식은 구조적 단위와 분절되는 공간확보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Karl Bötticher, “Das Prinzip der hellenischen und germaischen Bauweise hinsichtlich” in *In What Style should we build?* (edited by Wolfgang Herrmann) Getty Center, 1992, 정인하, “고트프리트 쾰프와 칼 비히터의 텍토닉 개념 비교”, 건축역사연구, 1998년 12월

구축성이 성당건축에서도 세계성과 지역성의 비판적 접점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이 가지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프램톤은 또 다른 전략으로 '축각성'을 본다. 이것은 서구의 건축이 주로 투시도법의 시지각적 인지성에만 편향되면서 건축의 본래모습을 잃어 갔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건축이 자신의 고유한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축요소에서 배어나오는 후각적, 청각적, 미각적 요소들을 온 몸으로 체험하도록 해서 불완전한 시각적 경험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그렇지만 축각성은 프램톤의 주장처럼 물질적 차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축각성'²¹으로까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구축재료의 물성은 결국, 그것으로 둘러싸는 공간에다 어떤 질적 특성을 부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베이(Bay)구조를 갖는 전통 서양식 성당건축의 시지각적 투시형 공간²²은 비판의 대상이 되며, 공간적 축각성의 표출은 비평적 지역주의 성당건축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장소-형태'는 산업자본주의와 모더

니즘건축이 형성한 개발위주의 공간적 익명성과 무장소성(placelessness)에 대한 비판을 말한다. 이를 위해 프램톤은 하이데거의 '공간(Raum)'개념을 언급하면서, 표백된 물질적 연장(延長, *res extensa*)으로서의 추상적 공간과는 달리, 어떤 영역의 확정된 경계²³를 통해 공간의 고유한 질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을 장소(place)라 부른다.²⁴

그런데 성당건축에서 비평적 지역주의를 위한 장소-형태의 의미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종교건축의 특성상 전술한 무장소성에 대한 저항보다는, 서구의 성당건축이 갖는 중심성(세계성)과 그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비-서구지역 성당건축의 주변성(지역성)의 관계, 즉 중심장소와 주변장소의 관계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접점으로서의 장소성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주변성으로서의 성당건축의 장소성은 주로 특정지역 신앙공동체의 종교사(宗敎史)적 사건과 연계된다. 그러므로 주변장소의 종교사를 기반으로 종교적 세계성과 지역성, 다시 말해 선교와 지역의 신앙공동체가 창의적으로 접목되는 '장소기반적(place-based) 종교문화의 창조'²⁵여부가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의 장소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당건축의 장소성이란 지역신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삶의 공간을 주체적으로 형성해가는 실천적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0) Kenneth Frampton, *Op. Cit.*, p.20.

21) 알로이스 리글(Alois Riegl)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경계가 뚜렷하게 인식되는 공간에서는 근시(近視)적 인식으로 재료의 물성이 먼저 감각되며, 이후 물질적 축각성을 넘어 공간에서 어떤 질료성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공간적 축각성'으로 확장된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Alois Riegl, *Late Roman Art Industry*, trans, Rolf Winkes, Giorgio Bretschneider Editore, Italy, Rome, 1985. 井上充夫, 「建築美論」, 임영배·신태양 공역, 도서출판국제, pp.227-235. 정만영, 「르 꼬르뷔제와 루이스 칸 건축공간에서의 가시성과 가축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호 등을 참조.

22) "이제 공간은 한눈에 파악되어지고 제단을 향한 투시 효과는 기둥의 열들로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바실리카는 구원의 통로라는 길로 길이 되면서 기독교의 주제와 결합된다." C. N. Schultz,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Praeger 1974. p.61.

23) 여기서의 경계란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끝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 한 것처럼, 무언가가 시작하는 그런 곳이다." Martin Heidegger,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Poetry, Language, Thought*, 1971. p. 154.

24) Kenneth Frampton, *Op. Cit.*, p.20.

25) A. Dirlík, "Place-Based Imagination: Glocalism and the Politics of Place", eds. R. Prazniak & a. Dirlík, *Places and Politics in an Age of Glocalism*,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30.

3. 비평적 지역주의로 본 한국 성당건축의 지역성 표현

비평적 지역주의로 한국 성당건축의 지역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세계성과 지역성의 범주를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세계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개화기에 서구 가톨릭의 본격적인 전래와 함께 유입된 (고딕양식 중심의) '전통서양식 성당건축'의 영향이며, 다른 하나는 2차 바티칸 공의회²⁶⁾의 지침과 20세기 근대건축이 융합되어 1960년대 전후에 주로 유입된 '서구모더니즘 성당건축'의 영향이다. 그리고 이와 대비된 지역문화의 특수성은 크게 셋으로 분리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내재적인 한국 전통건축과 외부적인 일본 근대건축의 영향이다. 둘째는 주로 1960년대 이후로 나타난 한국 전통건축의 재현(再現)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70년대 후반 이래로 나타나는 한국 전통성의 추상화(抽象化) 경향이다.

이상과 같은 범주를 기반으로 한국 천주교의 토착화과정과 함께 성당건축에서 세계문화와 지역문화가 어떻게 융, 복합되어왔는지를 비평적 지역주의 시각으로 분석해보자. 이렇게 될 때, 한국성당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의 좌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3-1. 한국 전통건축의 변용(變容)과 외부성(外部性)의 영향

서구 가톨릭이 본격적으로 전래된 개화기 이래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성당건축에서 지역성으로 표현된 것은 한국 전통건축이 변용되어 나타난 두 가지 유형이다. 신앙의 자유가 시작된 개화기 초기에 기존 한옥을 변용한 '한옥식 성당건축'과 일제강점기에 주로 보이며, 한옥과 서양식을 적극적으로 병치(並置)한 '한양절충식 성당건축'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 전통건축과 무관한 외부의 영향으로 형성된 성당건축의 지역성도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문화라는 역사적 역학구도에 의해 파급된 효과이다. 주로 일본 근대건축의 영향에 따른 '의양풍(擬洋風)식²⁷⁾ 성당건축'과 이를 단순화시킨 '목재패널마감의 강당형 성당건축'으로 나눌 수 있다.

한옥성당이 주요한 지역성으로 표현된 개화기 한국천주교의 종교적 토착화는 자생적인 토착성²⁸⁾과 파리외방전교회 중심의 선교성이 접목된 성격을 갖는다. 한편으로 17세기부터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이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재적인 토착화가 진행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화기에 서구의 세계선교를 통해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되면서, 이들 상호간에는 융합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생적인 천주교의 시발은

26) 2차 바티칸 공의회(Vatican II)는 1962년 10월에서 1965년 12까지 천주교회를 내적으로 쇄신하고 현대에 적용시키며, 외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하여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소집된 공의회로 현대교회건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전례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등 4개의 헌정과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이 발표되었으며, 교회와 사회, 문화, 예술 등에 대한 현대적 상황을 세부적 지침으로 집대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천주교의 전례 형태와 성당건축의 공간구성의 변화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 가톨릭 대사전」, 1998. pp.7447-7450.

27) 유사 서양식건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근대(주요 明治時代)에 유행하였으며 외형적으로 서양식이고 주요 구조와 내부는 일본식과 서양식 목구조가 혼합되는 건축양식을 말한다. 近藤 豊, 「明治初期の擬洋風建築の研究」, 理工學社, 1999.

28) 이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말하며, 세계교회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독특한 사례이다. 주변국가인 일본, 중국의 경우는 자생적 과정 없이 서양선교사에 의해 천주교가 이식(移植)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인사이드 한국천주교회」, 2010. p.20.

성리학 중심의 조선사회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고, 개화기의 천주교 전래는 서구 제국주의세력을 업은 선교사와 지역통치세력 간에 정교분리(政教分離)정책을 전제한 타협의 산물²⁹⁾이란 점에서 비평적 지역주의의 구도로 볼 가능성은 존재한다. 적어도 외형상 지역성과 세계성 각각에 대한 비판적 정체과정을 거치고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서이다.

하지만 그 내용의 면면을 살피게 되면 여러 문제 또한 감지된다. 비록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천주교가 유입되었다고는 하나, 소수의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중인이하의 소외된 사회계층이었다는 점에서 그 세력은 미약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지역통치세력과 타협과정에서, 이른바 로마 가톨릭이란 ‘서구 천주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의식적 비판이 스스로에게 진행되었는가’하는 문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교안(教案)’이라는 반기독교운동이 전개될 정도로 서구 제국주의세력을 업고 특권적 지위³⁰⁾를 누렸음에 반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으로 자성(自省)적인 비판의식은 부족³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개화기 천주교도착화의 이 같은 복합적 성격은 서양식 성당건축과 기존 한옥을 변용한

한옥식 성당건축이라는 두 유형의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서양식 성당건축은 선교사 중심의 대도시 본당에 주로 건립되었고, 한옥성당은 대부분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유서 깊은 교우촌(教友村)을 중심으로 나타나서이다. 그런데 전자는 토착화과정 없이 선교사 주도로 이식(移植)된 양식이란 점에서 지역성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지역 전통건축의 서양식 변용, 즉 세계성과 지역성의 접목으로서 개화기 천주교의 종교적 복합성과도 직접적인 연계가 된다는 면에서 비평적 지역주의의 논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생성배경을 갖는 한옥성당은 건축적인 구성에서도 그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비록, 서양건축(세계성)과 한국건축(지역성)의 완성도 높은 비판적 접점을 찾은 단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술한 구축성, 촉각성, 장소-형태의 논점에서도 그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어서이다. 이런 점은 전통건축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변용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옥구조가 갖는 건축적, 문화적 지평을 넓힌 기초적 단계라 판단된다.

먼저 한옥성당의 구축성을 보자. 서양식 성당건축의 라틴형 십자평면(Latin Cross)이 갖는 베이(Bay)시스템과 깊은 투시형 공간을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전통한옥의 재료와 구조 방식을 창의적으로 변용한다. 그 핵심은 전통한옥의 도리방향의 횡축과 보 방향의 종축을 바꾼 다음 칸(間)구조를 더함으로써, 긴 장방형공간을 확보하는 지붕구조시스템³²⁾의 구축에 있다. 이로부터 한옥성당의 구조적 지지물

29) 강인철, “한국천주교의 역사사회학”, 한신대학교출판부, 2006. pp.37-38. p.60.

30) 프랑스 제국주의에 의한 한불조약(1886년)의 체결 직후부터 이미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에 착수했으며, 지외법권을 이용하여 송사에 개입하고 사형을 가하기도 하고, 개항지를 벗어난 곳에서도 방대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반기독교운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Op. Cit.*, p.28.

31) 당시 선교사들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가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음으로써 근대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이런 점은 그들의 신앙유형이 경건성, 엄격성, 보수성으로 배타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 노길명,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빅벨출판사, 1988. pp.20-21. 파리외방전교회는 배타주의적 선교정책의 대표주자였다. 강인철, *Op. Cit.*, p.44.

32) 이것은 구축성의 핵심이 지붕구조시스템으로 집약된다는 칼 뵘히터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폐쇄된 공간의 형태는 지붕의 형태와 일치하기 때문에, 전체 평면과 배치는 지붕의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공간뎀개는 모든 양식의 구조적 원칙을 드러내고,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인하, 앞 논문 p.87.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프렘프톤도 뵘히터를 언급한다. Kenneth Frampton, *Op. Cit.*, p.20.



<그림 1> 한국최초의 한옥성당인 되재 성당 (1895년 신축, 2009년 복원): 전형적인 한옥성당의 특성을 보여준다.

의 위치와 모양이 결정되고, 벽의 배치와 분절이 이어진다. 그리하여 한쪽 끝에 제단을 두고 반대쪽에는 입구를 두며, 중앙고주(高柱)를 경계로 남녀회중석이 구분되고 성당의 상징인 종탑을 입구 부근에 첨가하는 등의 모든 예술적, 기능적 형태가 결정되면서, 서양식 전례공간과 유사한 공간형식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은 분명히 비평적 지역주의의 가능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간구성을 위한 구축성이 아니라, 하중과 지지라는 구조방식 자체에 초점을 두면, 그 접목성과 완성도는 약하다. 전통 서양식 성당건축의 기둥-보울트 식재 구조와 한옥의 목재 가구구조 사이에서 구조방식의 비판적 접목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본 성소피아 성당의 펜던티브 돔처럼 주류문화(로마)와 지역문화(서아시아) 사이에 보이는 구조방식의 장점만을 취한 화학적 융합(시적 구조표현)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옥성당에서는 두 번째 조건인 촉각성도 감지된다. 이것은 다시 ‘물질적 촉각성’과 그것이 확장된 ‘공간적 촉각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前者)는 한옥의 중심재료인 목재와 흙의 진한 향기와 질감, 신체의 움직임과 함께 울려

지는 마루바닥의 소음과 감촉, 개구부 한지(韓紙)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 등을 온몸으로 감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후자(後者)의 경우는, 서양식 성당의 베이스시스템 공간이 주로 거대한 시각적 비례감이나 색채와 빛에 의한 광학적 효과(예컨대 고측장이나 스테인드글라스 등의 효과)를 중시³³⁾한 반면, 한옥의 칸(間)은 인간의 거주와 상관성을 갖는 기초적 공간척도(Human Scale)로서, 그 경계를 이루는 구축재료의 다양한 물성이 이 공간에다 시각성외에도 어떤 감각적 질성(質性)을 부여하여 그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오감과 좀 더 밀접히 상호작용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편, ‘장소-형태’의 문제는 종교적 특성상 성당건축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속성이다. 특정한 장소로서의 성당건축은 언제나 종교사(宗教史)적 사건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화기 한옥성당은 대부분 유서 깊은 교우촌이나 순교지를 중심으로 건립되므로, 그 자체가 의미론적 장소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박해시대 이래로 교우촌을 형성한 곳에 지어진 최초의 한옥성당인 되재 성당(1895년), 청계(淸溪)라는 유서 깊은 교우촌에 건립된 청계 성당(1898년), 한국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첫발을 디딘 화산 성당(1906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사적 의미를 함축한 한옥성당이 대부분 교우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에 위치했다는 점은, 대도시나 개항지 서양식 성당건축의 장소적 중심성에 대비된 하나의 지역적 대안공간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특권층화된 선교사들에 의한 대도시 서양식 성당건축이 갖는 선교 중심성에 비해, 한옥성당은 개화기

33) 서양식 건축공간의 시지각적 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는 박영욱, “시각 중심적 건축의 한계와 불투명으로서의 공간”, 시대와 철학 2007 18권 4호, 데이비드 마이클 fp 빈, “모더니티와 시각의 헤게모니”, 정성철 외 1인 역, 시각과 언어, 2004. 등을 참조.

천주교의 특성인 종교적 접목성, 즉 새로운 서양식 종교문화를 지역적 기반 하에 주체적으로 형성한 당시 신앙공동체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한옥성당의 장소성을 비평적 지역주의 시각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한옥성당의 모습들은 전통 서양식 성당건축의 내부공간형식(세계성)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속성(지역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성당건축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한옥성당의 고유성인 동시에 비평적 지역주의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요소이기도하다.

개화기 이후 조선에서의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의 실패는 일제강점기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천주교 토착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선교사와 토착 신자들의 관계라는 기존 구도에, 식민통치세력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면서 복잡한 역학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시기는 일제가 내세운 선교의 자유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선교회³⁴⁾가 조선에 진출하면서 종교적 상황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외부성의 영향이란 시각에서는 비교적 일관성을 갖는 현상들이었다. 강력한 식민통치세력이 교황청 및 선교회를 압박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른바 ‘정치적 순응주의’라는 정교분리의 타협안을 채택하게 하고, 이로 인해 선교사들에 대한 종속이 강했던 조선인 신

자들은 식민통치세력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의식의 고양에 점차 어렵게 되는 상황³⁵⁾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천주교에는 “토착 신자들의 종교적 민족주의로부터 오는 압력이라는 ‘내발적(內發的)·주체적’ 요인보다는, 식민지 권력과 교황청-선교회들로 부터의 압력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³⁶⁾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적 맥락 안에서는 조선 천주교의 ‘종교적 토착화’는 결코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게다가 토착화의 준거로 작용한 종교·문화적 상황은 일본적인 것이었으므로,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왜곡된 토착화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후반의 신사참배의 허용이나 일제의 전시체제에 대한 협력 등은 종교적 토착화를 철저히 왜곡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비평적 지역주의의 시각으로 이와 같은 토착화의 과정을 재해석 해보면, 다양한 선교회의 활동과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리-오리엔탈리즘(Re-Orientalism)³⁷⁾적 영향 등이 세계성으로, 그리고 토착 신자들의 종교성이 지역성으로 각각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교회의 배경이 되는 교황청의 선교방식이 단순한 종교적 이식(移植)보다는 적응주의와 토착화를 지향했고, 식민통치세력의 종교·문화적 정체성은 화양절충(和洋折衷)에 기초하고 있었

35)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민족주의의 부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채보상운동과 3.1운동에 참여한 천주교 신자나, 십자 성호경을 갖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결한 사례 등에서 보듯이 강한 민족주의 의식을 표출한 사건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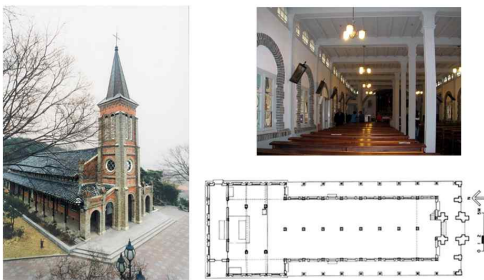
36) 강인철, *Op. Cit.*, p.21.

37) 서구가 만든 오리엔탈리즘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동양의 다른 나라, 예컨대 식민지인 조선처럼 일본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나라에 오리엔탈리즘과 동일한 논리를 제 투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아 오리엔탈화(self-orientalization)이라고도 한다. 박승우,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과 오리엔탈리즘”, *동아연구* 제54권 2008년 2월, pp.34-37. 참조.

34) 개화기에 진출한 파리의방선교회 외에, 독일계 베네딕도회(1909년)가 만주지역으로, 미국계 메리놀회(1923년)가 평양지역으로, 아일랜드계 골롬바노회(1933년)가 전라도, 제주도 및 강원도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들은 선교목적과 방향에서 서로 차이가 존재했으며, 그에 따라 추구하는 성당건축의 양식도 달랐다. 파리의방선교회와 골롬바노회는 고딕식을, 베네딕도회는 로마네스크식을, 그리고 메리놀회는 절충식 성당건축을 각각 추구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신, *Op. Cit.*, pp.58-61 참고

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일종의 비평적 정체 과정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토착 신자들의 비판 혹은 저항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지역적인 상황은 종교적 비평적 지역주의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천주교 토착화의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당시 성당건축의 생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기에 등장한 주류양식이 한양절충식과 서양식 성당건축이고, 예외적으로는 일본양풍식 성당건축의 등장인데, 이들 모두에게는 다양한 선교회와 식민문화라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종교적 자발성을 상징하는 한옥성당의 발전이 정체된 것도, 당시의 민족주의 의식의 약화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의 유형 중 전술한 종교적 토착화, 즉 선교회와 식민지 권력에 의해 주도된 일제강점기의 기형적 토착화와 연계하여 비평적 지역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한양절충식 그리고 일본 의양풍식과 그 변형인 목재패널식 성당건축이다.



<그림 2> 한양절충식으로 증축된 화산성당 (1916년)

한양절충식 성당건축은 전통 한옥과 서양식을 적극적으로 병치(並置)한 유형이란 점에서 쉽게 지역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방식이나 재료의 구성 등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옥성당보다 한층 진보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

옥식 지붕구조는 외형적으로 유지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강성이 큰 서양식 트러스구조와 접목되면서 중층구조의 넓고 높은 공간이 형성되고 고측창(clearstory)을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벽과 종탑은 벽돌 조적조로 대체되고 빗마루가 회랑으로 바뀌는 등, 재료와 공간구성에서도 서양식 성당건축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외형적으로는 서양식(세계성)과 전통식(지역성)을 직설적으로 병치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앞서 본 한옥성당처럼 세계성과 지역성이 비판적 시각으로 정제(淨濟)되고, 다시 그것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탄생으로 보기는 힘들다. 먼저 건축성에서 한양절충식의 중층목구조와 벽돌조적조로 넓고 높은 공간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독특한 한옥의 칸 구조가 갖는 인간적 척도의 유용성과 의미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당의 내부는 대공간(大空間)형식으로 구축되면서 빛의 유입, 회화적 재료 마감 등으로 시시각각이 강조되는 전통 서양식 성당건축의 투시적 공간에 근접하게 된다. 그에 따라, 한옥에서 감각되는 물질적, 공간적 촉각성도 반감되고 만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주로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과 벽돌의 대량생산, 선교사 중심으로 서양식 성당건축을 수용하려는 의지³⁸⁾, 그리고 특정 선교회의 종교적 이념³⁹⁾ 등이 건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토착 신앙공동체의 자발성보다는 외부성의 영

38) "(선교사 주도의) 서양식 교회건축의 영향은 너무나 커서 이미 한옥으로 지은 교회조차 전면을 양식으로 개조하기까지 하였다." 조창한, *Op. Cit.*, p.254.

39) 이 시기 신의주 성당(1926년), 충무성당(1929년), 평양 서포성당(1931년) 등의 다수의 한양절충식 성당건축이 메리놀 선교회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런데 이는 자발적인 종교적 토착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지역전통문화 수용을 종교적 이념으로 삼았던 메리놀 선교회의 의지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외부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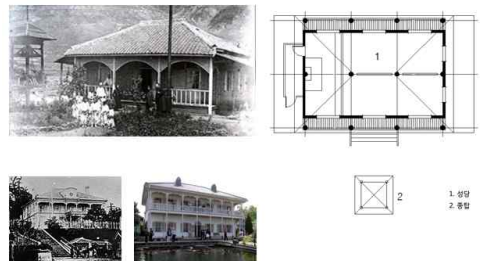
향이 강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일제강점기 천주교가 외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종교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술한 한옥성당이 보여준 장소 기반적 종교문화의 주체적 형성이란 의미, 즉 장소성의 구현을 뚜렷하게 보기는 힘들다.

요컨대, 한양절충식 성당건축은 서양식과 한옥식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기보다, 현실여건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형성된 종속적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의 가능성과도 멀어진다고 판단된다. 증축된 화산성당(1916년), 구포동 성당(1922년)과 메리놀 선교회 성당인 신의주 성당(1926년), 충무성당(1929년), 평양 서포성당(1931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시각의 지역성 문제가 존재한다. 일본 근대건축의 영향으로 생성된 의양풍식 성당건축과 이를 단순화 시킨 목재패널식 성당건축의 지역성 표현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천주교의 전래와 함께 유입된 서양식 성당건축의 영향이 아니며, 한국 전통건축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을 논하는 데에 여러 난점이 따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지역성과 전혀 관계 없는 현상으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비록 일본 근대건축이 미친 영향은 식민지 권력에 의해 주도된 타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특정시기에 한국 성당건축의 새로운 유형을 형성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서이다. 달리 말하면, 서양식 건축이 일본건축과 융합된 후, 다시 한국건축에 이식(移植)되면서 새로운 변형을 가져온 일종의 '이중적 비평적 지역주의(리-오리엔탈리즘적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으로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축이란 본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성되는

산물인 만큼, 이처럼 특이한 성당건축양식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 유형은 지속적인 변화나 발전을 보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와 사회적 여건에 따른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며, 식민통치권력에 의해 왜곡된 토착화의 결과라는 점에서 심도 깊은 지역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일본 의양풍식 성당건축으로는 부산 최초의 본당인 초량성당(1893년)을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무엇보다 당시 한국 성당건축의 주류양식(한옥식, 절충식, 서양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일본근대건축의 영향이 일차적이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일제강점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부산의 경우 이미 1877년에 일본전관거류지를 만들고 일본인의 내왕과 통상, 토지 임차권, 가옥 건축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상당부분을 잠식하면서 침략을 기반을 구축했다⁴⁰⁾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3> 1893년 초량성당, 아래는 일본 메이지 시대 의양풍식 건축으로 부산 일본영사관(1884, 좌), 일본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중공업 휴게소(1896, 우)

추정되는 초량성당의 구축성은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 의양풍건축과 유사하다. 따라서 주요 구조는 일본과 서양식 목구조가 혼용되어 있으며, 외관은 서양식건축을 모방한 벽돌 벽

40) 김갑득, “구한말 정동 외인 거주지와 건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3. 2. p.19.

과 장식적 목조구성을 보인다. 다만 평면과 내부의 기둥배치는 장축방향성과 남녀공간 구분 등, 전례기능에 적합하도록 재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화양절충식이란 점에서 세계성과 지역성의 접점을 형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있으나, 종교건축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구축성의 접목과 창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성당건축의 비평적 지역주의를 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내부 전례공간은 전통 서양식 성당건축을 모방하는 경향으로 인해 일반적인 일본 의양풍식과는 달랐다는 점에서,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의 촉각성이나 장소-형태를 논하기도 어렵다.



<그림 4> 목재패널마감의 장방형 성당건축 사례인 부산진성당(1916년, 벽돌조 종탑은 증축부분, 위 좌측), 마산성당(1914-43년, 위 우측), 중강진성당(1935년, 아래 좌측), 경주 청동성당(1931년, 아래 우측)

목재패널마감의 강당형 성당건축은 앞서 본 의양풍식을 단순하게 변형한 것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은 예산과 빠른 시간에 시공이 가능한 목조 트러스구조에 목재패널을 마감⁴¹⁾한 구성이 주

41) 이러한 성당건축의 구조와 벽체는 “목조기둥 사이로 셋기둥을 넣은 다음 비늘판을 가로로 붙여 벽체를 만든 다음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비늘판의 상판과 하판

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인 제국주의 문화 식민이입(文化移入)의 산물이다. 일반적으로 신랑(the nave)과 측랑(the aisle)의 구분이 없는 단순한 장방형공간에 종탑을 부가한 형식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특정한 건축양식이나 전례공간을 구현하려는 자발적인 의지보다, 일본 근대건축의 이식, 즉 건축적 식민성과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수동적으로 반영한 것과 관계가 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외재적인 세계성과 내재적인 지역성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접점으로서 구축성이나, 촉각성, 그리고 ‘장소기반적 종교문화 형성’이라는 장소-형태의 논리가 적용되는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으로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나타난 한국 성당건축의 새로운 유형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왜곡된 지역성으로 볼 수는 있다. 중강진성당(1935년)을 포함하여 주로 일제 강점기 북한지역의 성당건축에서 많이 나타나며, 부산진성당(1916년), 마산성당(1914-43년), 경주 청동성당(1931년), 나주성당(1936년) 등의 다양한 지역적 분포⁴²⁾도 보인다.

3-2. 한국 전통건축의 재현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에, 성당건축의 지역성 표현은 한국 전통건축을 재현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천주교의 독자성이 확립되는 토착화 현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 시기의 천주교 토착화는 ‘한국천주교회의 새로운 교계제도(敎階制度) 설정’⁴³⁾ 과 ‘제2차 바티칸 공을 겹쳐서 붙이는 것과 판과 판의 측면을 가볍게 겹쳐서 붙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목구조 방식을 도입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벽체 마감방식과 혼용한 것이다.” 정인하, “근대적 삶의 방식과 건축”, 공간, 2006년 4월호 p.182.

42) 한국교회사연구소, “빛, 믿음, 흔적”, 2010.

의회 영향',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종교성'이 주요한 뼈대가 된다. 이 중 교계제도 설정은, 한국 천주교가 선교사 시대의 막을 내리고 정식 자립교회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주적인 종교권을 확보한다는 토착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말 미사의 시작, 교리서와 기도서의 현대화, 평신도 운동, 시복 운동 등의 천주교의 전례토착화에 관련된 여러 환경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미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사제와 보다 친밀한 관계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 같은 두 요인을 비평적 지역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교황청과 선교회라는 세계성이 비평적 정체과정을 거쳐 근대적 토착화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사회 참여적인 종교성은, 부분적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의 사회참여를 촉구한 영향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외에 60년대 이래로 군사독재에 대한 정치적 문제,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개발과정에 초래된 사회문제⁴⁴⁾ 등의 현실적인 환경이 주요한 동기로 작동하게 된다. 천주교의 이러한 사회참여는 지역의 기존 지배세력문화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의 종교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평적 지역주의가 지향하는 지역성의 비판적 정체로 볼 수 있다.

43) 1962년 교황 요한 23세는 한국천주교회에 3개의 관구와 12개의 교구로 구성되는 교계제도를 설정했다. 이로써 정식 자립교회로 인정되어 세계의 여타 지역 교회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Op. Cit.*, p.147.

44) 대표적인 정치문제의 참여는 1974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정의 구현 및 인권운동과 반독재 투쟁을 들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문제는 1960년 말의 '가톨릭 노동 청년회', '한국 가톨릭 농민회' 등이 결성되면서 시작된 노동운동이 주요 사례가 된다. 한국교회사연구소, *Op. Cit.*, pp.154-156.

이처럼 이 시기 한국 천주교의 종교적 근대화이자 토착화는 세계성과 지역성의 비판적 접점을 찾아가는 비평적 지역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성당건축에도 일정정도 반영된다고 본다. 1960 - 80년대의 사회적 근대화와 2차 바티칸 공의회 영향 등의 외부 요인에 따른 토착화가 주도적으로 표현된 성당건축 대부분이 20세기 서구 모더니즘건축의 유형이었고, 사회 참여를 모토로 삼았던 한국 천주교의 주제적, 내재적인 종교적 토착화는 지역성의 표현으로서 전통의 재현이나 추상화가 표출된 성당건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므로 이때의 성당건축의 비평적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20세기 모더니즘건축과 한국 전통건축의 요소들 간의 비판적 접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중 집중할 부분은 한국의 전통건축 재현이나 추상화가 적용된 성당건축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재현적 성당건축은 내재적인 종교적 토착화의 의지 외에도, 6-70년대 서구 모더니즘건축의 본격적인 유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의 이슈화,⁴⁶⁾ 80년대 이후 서구 포스트모던건축의 영향 등이 맞물려 낳은 결과이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 요소를 직설적으로 장식화하는 '직접적 재현'과 변형과 단순화라는 단계를 더 거치는 '은유(隱喻)적 재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모더니즘건축의 구축방식과 재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전통건축이라는 지역적 속성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비평적 지역주의로 논할 대상이 된다.

45) 1980년에는 이 외에도 표현주의나 서구의 포스트모던건축의 영향의 서양 복고식성당건축 등 다양한 유형들이 나타난다. 이는 종교적인 영향보다는, 급속한 경제성장 근대화가 교회건축에 일반 건축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이다. 하지만 이런 유형은 이 글의 논지에서 벗어나므로 배제한다.

46) 대표적 사례로 1967년 김수근이 설계한 부여박물관의 왜색(倭色)시비를 들 수 있으며, 건축에서 전통재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킨 사건이다.



<그림 5> 한국 전통건축을 재현한 성당건축사례, 새남터 성당(1987년, 직접적 재현, 위), 절두산 성당(1967년, 은유적 재현, 아래)

전통건축의 직접적 재현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단순한 강당형 평면이라는 모더니즘건축의 내부형식을 따르면서도, 전통기와지붕, 기둥과 공포, 기단과 기초 등을 외부에 직설적으로 모사(模寫)하여 성당건축의 지역성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서둔동 성당(1969년), 새남터 성당(1987년), 봉세리 성당(1990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전통요소의 은유화로 지역성을 표출한 경우는 절두산 성당(1967년)이 대표적이다. 한옥의 처마선형을 콘크리트지붕의 곡선으로 단순화했으며, 주초(柱礎), 쌍주(雙柱)형 기둥과 공포 등의 전통 목구조형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변형하고 단순화시켜 외부로 노출하면서, 은유적으로 전통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들을 창의적인 비평적 지역주의의 가능성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핵심요소인 ‘세계성과 지역성 둘 다에 거리를 두는 비평적 정체과정’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직접적 재현의 경우, 현대의 성당건축에서 소통 불가능한 과거의 건축언어를 정체과정 없이 시대착오적으로 직접 표현한다. 그 결과 모더니즘건축과 전통건축의 새로운 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시키는 현상을 낳게 된다. 거기에다, 전통건축이 주로 외부의 장식적 요소로만 쓰이고 내부공간은 모더니즘건축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서, 전례공간 구성에서 통섭(通涉)적인 새로운 구축성을 창출한다거나, 전통건축에서 보이는 강한 축각성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

은유적 표현은 이에 비해 전통건축의 요소를 현대적인 형태로 변환시켜 소화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성당건축의 주요구조나 전례공간의 구성 그리고 전체 배치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장식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전통건축의 비평적 정체과정이 피상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비평적 지역주의 성당건축을 향한 새로운 구축성과 축각성을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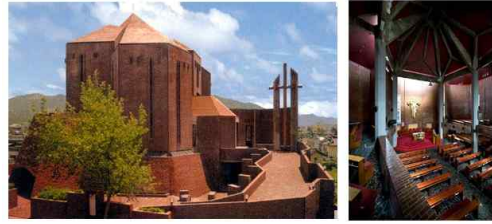
다만, 이런 유형의 성당건축 대다수가 박해나 순교 등의 종교사적 사건을 의미화 하기위해 전통요소를 지역성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장소성은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남터 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의 순교지이며, 기해박해(1839년)때에는 조선교구장인 앵베르 주교가, 병오박해(1846년) 시에는 한국인 최초의 김대건 신부가, 병인박해(1866년)에서는 조선교구장인 베르뇌 주교를 비롯한 수많은 사제가 각각 순교한 성지(聖地)이며, 절두산 성당은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때에 수많은 신자들이 칼로 목을 찔수당한 순교한 유서 깊은 장소라는 종교사적 배경을, 전통건축양식과 역사적 흔적을 둘러싸는 배치방식으로 긴밀히 연계하여 장소-형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천주교의 현대적 종교문화를 형성한 토대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장소성을 갖기도 한다.

3-3. 한국 전통건축의 추상화

앞서 본 1960년대 이후의 한국 천주교 토착화 과정과 함께 한국 성당건축의 지역성표현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 토착화의 상징을 위해 전통건축을 단순히 장식적으로 모사(模寫)하는 기존의 재현적 방법이 아니라, 내재된 공간적 특성을 추상적(abstract) 개념으로 변환시킨 다음, 이를 형태 구성의 주요 논리로 작동시켜 지역성을 새롭게 표현한 것이다. 그 핵심은 전통건축의 전이공간(轉移空間)과 인간적 척도(Human Scale)의 특성을 ‘연속성과 군집미(群集美)’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이를 긴 진입동선으로 연결되는 외부공간의 구성과 전체매스(mass)를 분절시켜 모으는 건축적 표현에 각각 대응시키는 데에 있다.⁴⁷⁾ ‘한국 교회건축의 새로운 이념형’이라 불리는 마산 양덕 성당(1979년), 불광동 성당(1985년) 등이 실현된 사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는 한국 천주교의 진정한 자주성을 건축적으로 완성도 높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건축적 특성은 전통건축의 속성이 비평적 정제과정을 거쳐 주요한 디자인 논리로 작동하면서도, 건축물의 재료와 구축방식 그리고 공간구성은 모더니즘건축의 논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구축성, 촉각성, 장소-형태라는 세부조건을 놓고 들여다 볼 때, 여러 문제점 또한 동시에 노출시킨다.

양덕 성당의 경우, 전통성의 표현은 첫째, 우리나라 사찰건축에서 보이는 외부 진입공간의 지축적, 위계적 구성을 연속성으로, 둘째, 인간적 척도가 적용된 전통공간의 속성을 소규모 매스가 조합되는 군집미로 각각 해석한다. 여기서 연속성은 1층 성당입구에서 2층의 주



<그림 6> 마산 양덕성당(1979년)

전례공간에 이르는 ‘ㄷ’자형 우회로 중심의 외부공간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군집미는 중앙 회중석 공간인 주 매스 주변으로, 출입부, 성가대석, 중앙제대공간, 제의 및 계구실 등의 세부공간이 분절된 매스형태로 붙어있는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 적용된 인간적 척도는 군집미 외에도 작은 출입구와 창, 좁은 통로, 낮은 층고, 소규모 고해실 등의 세부적 구성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양덕 성당의 주요한 구조, 재료, 공간에서는 전형적인 서양식 건축논리를 따른다. 중앙 회중석 공간인 주 매스는 6개의 기둥과 보, 그리고 리브볼트(rib vault)로 조합된 육각형 천정으로 구성되며, 이를 둘러싸는 부공간의 매스들은 별도의 벽-지붕구조로 이중화 되어있고, 그 전체는 철근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공간은 기능에 따라 외부형태가 결정되며, 내, 외부에 장식을 배제한 점 등은 서구 모더니즘건축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성과 세계성이 만나는 접점은 어떻게 규정 할 수 있을까. 우선 크게 보자면, 전통성의 표현에서 추상화를 통해 전통건축의 향수(鄉愁)와 재현에서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서양식 구조와 재료를 변용하여 한국식 연속성과 군집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비평적 지역주의의 가능성은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축성, 촉각성, 장소-형태라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입장은 달라진다.

47)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미건사, 1996. p.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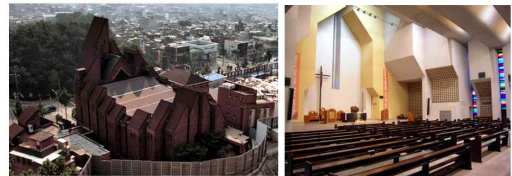
먼저, 구축성에서 세계성과 지역성의 창의적인 융합을 보기는 힘들다. 변형된 서양식 리브볼트구조와 벽식구조의 이중화는 새로운 구조유형을 창출하기보다, 단순히 외부 매스의 균집미를 표현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기에 적용된 구축방식 자체에서 서양식 건축과 전통건축과의 창의적인 접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촉각성의 표현은 뛰어나다. 내부 공간의 벽돌벽과 바닥의 파형(破形)석재 마감 이 다양한 창에서 유입된 빛과 만나면서, 강렬한 물성적 촉각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심공간을 원점으로 분절매스의 촉각적 벽면들이 사면을 둘러싸면서, 경계가 명확한 하나의 거대한 방을 형성하여 공간적 촉각성도 창출해 낸다. 외부공간에서도 촉각성은 강하게 표출된다. 전체적인 벽과 지붕, 그리고 바닥의 적벽돌 마감은 시각성을 넘어선 촉각성을 펼쳐내며, 특히 성당 하단부 벽돌 치장 쌓기의 효과는 촉각성의 정점(頂点)을 이룬다. 하지만 여기서도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촉각성과의 상관성을 심층적으로 읽어 내기는 힘들다.

장소-형태의 문제는 대지의 여건상 매우 인위적이라 그 표현이 약하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강한 상징성을 표출하기 바랐던 건축가의 의도와, 도시 중심부 평지인 실제 대지의 여건 사이에 괴리(乖離)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의도적으로 성당 하단부를 경사지게 처리하고 성당벽체와 이질적으로 거칠게 벽돌을 마감하여, 상부건물이 마치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조작하게 된다. 이는 주변의 물리적 맥락에 충실히 조화됨으로써 무장소성에 저항하는 장소성을 획득하고자하는 프램톤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지와 성당건축은 어떠한 종교

사적 사건이나, 건립당시 천주교의 사회참여활동으로 지역기반의 새로운 종교문화를 주체적으로 형성한 것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교회건축에 일반 건축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당시의 상황이 만들어 낸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양덕 성당에서 의미론적인 장소성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림 7> 불광동성당(1985년)

불광동성당에서도 전통성을 함축한 연속성과 균집미 개념은 계속 적용된다. 양덕성당과 차이가 있다면, 주 진입로가 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며, 분절된 매스가 구체적인 기능을 갖기보다 주 전례공간을 둘러싸는 장식 벽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한 주요 구축방식과 비-장식적인 내부 공간 등에서는 전형적인 서구 모더니즘건축의 논리를 따른다. 다만 조소적인 분절매스의 형상과 외벽의 거친 적벽돌 마감은 표현주의적 경향도 나타낸다. 이 같은 특성을 종합하면, 여기서도 양덕성당과 유사하게 지역성과 세계성의 융합이라는 원론적인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구축성, 촉각성, 장소-형태라는 세부 영역의 평가에서는 이 또한 차이가 존재한다.

불광동 성당의 구축성은 분명히 양덕 성당에 비해 완성도가 높다. 분절매스의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가 정직하게 전체구조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즉, 형태와 구조의 일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통건축의 구조방식과의 조우(遭遇)는 여전히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평적 지역주의건축의 가능

44 논문

성에는 회의적이다.

성당 외부공간의 촉각성은 벽면전체를 붉은 벽돌로 마감하고, 부분적으로는 파형벽돌의 띠를 형성하면서 한층 증대된다. 그러나 내부공간은 몰탈과 페인트 등 시각적인 재료로 마감되면서 상당부분 촉각성이 상실된다. 그 결과 내부 전례공간에서 물성적, 공간적 촉각성을 느끼기는 어렵게 된다. 오히려 전례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분절매스의 조소적 형상으로 강한 시각적 효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장소-형태의 표현에서는 대지 전후면의 고저차를 잘 활용한다. 도로에 면한 전면 저층부에서 시작한 주 동선이 1층 출입공간 내부를 거쳐 다시 상승하는 외부 진입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2층 후면 전례공간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새로운 전이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동선구조는 종교적인 참도(參道)를 형성하고 공간의 기능적 분배에 유효하게 작용하며, 그로 인해 전면 형태가 강한 상징성을 갖게 되어 도로면에서의 인지성을 높이는 역할 한다는 점에서, 프램톤이 주장하는 무장소성에 대한 저항으로서 새로운 장소를 만든다는 의미를 살피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광동 성당은 주변장소로서의 한국의 어떠한 종교사적 사건이나, 당시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천주교의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기반의 새로운 종교문화를 주체적으로 형성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성당건축의 의미론적인 장소성을 보기는 힘들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 진술한 종교성보다는, 앞서 본 양덕 성당처럼 종교적인 측면의 고려보다 당시의 일반 건축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성당건축이 해석되고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4. 결론

진술한 것처럼, 성당건축에서 종교성과 건축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호 연관적 존재이다. 그런 만큼 약 1세기가 넘는 한국 천주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성당건축의 지역성 표현연구는 절실하고도 다급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된 개화기이래로, 종교·사회적인 변천과 한국 성당건축에 나타난 다양한 지역성의 문제를 연계해 논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내재적인 한국 전통건축을 주제로 삼았으며, 예외적으로는 외부성인 일본 근대건축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지역성 연구 대부분은 지역적 특성의 분석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고 이런 논지의 연구는 드물었다. 하지만 한국 성당건축의 지역성은 전통 서양식과 모더니즘 성당건축이라는 세계성과 전통건축인 지역성의 융·복합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평적 지역주의’ 개념이 오히려 유효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지역성을 다루는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분명한 차이점을 추출해 낼 수 있게 된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세계성과 지역성 둘 다에 거리를 두는 비평적 정체과정’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인 세조건, 즉 구축성, 촉각성, 장소-형태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국 성당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의 다양한 문제점과 가능성을 동시에 도출시켰다. 이는 한옥성당의 가능성과 한양절충식의 한계, 전통건축의 재현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 그리고 한국전통을 추상화한 성당건축이 갖는 장단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현대성당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물론, 비평적 지역주의의 시각만이 한국성당

건축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은 여러 건축이론가들로부터 검증은 거치는 과정에서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현대 건축가 혹은 건축이론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20세기 모더니즘건축으로부터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하나의 대안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한국 성당건축에서 지역성 표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심층적인 연구로 이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로서 비평적 지역주의를 제안하는 데에 있다.

8. 정만영, 「르 꼬르뷔제와 루이스 칸 건축공간에서의 가시성과 가축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호.
9. 정인하, 「근대적 삶의 방식과 건축」, 공간, 2006년 4월호.
10. 정인하, 「고트프리트 쟬프와 칼 뵘티허의 텍토닉 개념 비교」, 건축역사연구, 1998년 12월.
11.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미건사, 1996.
12.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 가톨릭 대사전」, 1998.
13.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학 연구회, 「지역학연구의 과제와 방법」, 책갈피, 2000.

접수(2011. 8. 15)

수정(1차: 2011. 12. 6, 2차: 2012. 2. 8,

3차: 2012. 2. 17)

게재확정(2012. 2. 27)

<참고문헌>

1. Kenneth Frampton, *Toward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Hal Foster,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New Press, 2002.
2. Denis R. Mcnamara,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and the Sprit of the Liturgy*, HillenbrandBooks, 2009.
3. Kate Nesbitt,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1.
4. Winand W. Klassen,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San carlos Publications, 1980.
5. Hans Küng,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분도출판사, 2008.
6.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7. 노길명,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박벨출판사, 1988.

A Study on the Regionality of Korea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with the Perspective of The Critical Regionalism

- Focused on Korean Modern Catholic Churches constructed between the 19th century and 1980's -

Kweon, Tae-Il
(Prof.,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e core idea of the critical regionalism could be summarized as a self-conscious synthesis between universal civilization and world culture. After World War II, it has been applied to architecture for overcoming the problem of Industrial Capitalism and uniformity of 20th century Modern Architecture. Naturally, religious architecture cannot also be an exception in this cultural trend, thus we can also apply the critical regionalism to the Korea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with the basic premise that the Traditional Western and Modern Style Church Architecture should be regarded as universal civilization, and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endemicity as one of world culture.

In the contex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regionality of Korean Moder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constructed between the 19th century and 1980's, and how it has been differently transformed with the view of the critical regionalism. Its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within three types;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the influence of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represent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abstrac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with eac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Keywords: Critical Regionalism,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Globality, Regionality
